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위선암에서 CD44v6 과발현의 의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¹김승호, 이정균, 이경근, 윤기중¹

(배경) CD44는 세포와 세포간, 세포와 기질간 상호 작용에 의해서 세포간 유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단백질로 여러 상피세포 및 림프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CD44는 기본형의 CD44s와 alternative splicing 등에 의해서 생긴 이형인 CD44v가 있는데 이들 이형 중 CD44v6는 위장관 암종의 발암과정, 전이 그리고 예후인자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림프절 전이가 있는 위선암에서 시행되었으며, 림프절 전이가 없는 환자에서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목적) 이에 저자들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위선암 환자에서 CD44v6 발현 양상과 예후와 관계된 인자와의 비교 및 예후와의 상관성에 관해 알아보려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7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원광대학교 외과학교실에서 수술을 받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위선암 환자 중 파라핀 포매괴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78명을 대상으로 CD44v6 (Neomarkers, Fremant, CA, USA)를 염색하여 종양세포 중 염색된 세포가 50% 이상인 경우를 고발현군, 50% 미만으로 염색된 경우를 저발현군으로 판독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예후인자인 종양의 침윤도, 세포분화정도, 혈관이나 림프관 침범 여부 등과 비교 하였으며 각기 인자들에 대한 5년 생존율을 구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 환자의 연령은 31세부터 86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59.1세였다. 전체 78예중 CD44v6가 고발현군인 경우가 17예(21.8%)였으며, 저발현군은 61예(78.2%)였다. CD44v6 발현과 종양의 침윤 정도, 조직학적 분화도, 림프관 및 혈관 침윤 유무와의 연관성에서는 χ^2 -test 상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전체환자의 5년 생존율은 74.9% 였으며, 세포분화도나 세포의 형태 등은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았다. 종양의 침윤 정도에 대한 5년 생존율은 T1에서 47예 중 40예로 81.5%, T2에서 27예중 20예로 70.4%, T3에서 4예 중 2예로 50.0%로 나타나 침윤 정도가 심할수록 사망률은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p=0.12$). 이것은 침윤 정도가 심한 경우의 예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암세포의 혈관 및 림프관 침윤이 양성인 경우의 생존율은 9예 중 5예로 55%, 음성인 경우는 69예 중 57예로 82% ($p<0.05$)로 침윤이 있는 경우에 좋지 않은 예후를 보여 주었다. 또한 CD44v6 고발현군에서의 5년 생존율은 17예 중 10예로 58%, 저발현군에서는 61예 중 52예로 85%($p<0.05$)로 고발현군에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위선암 환자의 CD44 발현은 기존의 예후인자와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환자의 예후에는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위선암 환자에서 CD44를 검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및 주의깊은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